

414명 확진...日 코로나19 확산 긴장 고조

크루즈선 355명 집단 감염
경로 불명 환자 곳곳서 속출
당국 대처도 비난 여론 비등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기 시작한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일요일인 16일까지 일본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일본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414명이다. 일본 정부가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며 승선자들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지난 3일부터 요코하마항에서 해상 검역을 진행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35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 크루즈선에서의 환자 수 증가는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강 건너의 불'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일본 정부가 취한 크루즈선 승객들의 해상 격리 조치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는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선내 감염자를 급격하게 늘린 일본 당국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해상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선 비판 여론이 일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수도권인 가나가와(神奈川県)현 거주 80대 일본인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처음 사망하고,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감염된 사람이 일본 열도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승선자(감염자 355명)와 중국 우한(武漢)에서 전세계면으로 귀국한 일본인(13명), 중국인 여행자(12명), 검역관-지자체 직원(2명) 등 당국이 검역 표적으로 삼았던 경로에서 발생한 환자를 제외하고 일본인 코로나19 감염자(32명)가 나온 곳은 16일 현재 수도 도쿄를 포함해 광역단체(전체 47개) 기준으로 11곳에 달한다.

지역 범위로는 최북단의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최남단인 오키나와(沖縄)까지 걸쳐 있어 사실상 일본 열도 전역의 방역망이 뚫렸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이 됐다. 특히 일본 당국이 대형 크루즈선 검역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이에도 도쿄 하천을 누비는 소형 유람선인 '야카타부네'(屋形船)를 매개로 한 감염이 퍼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한 모습이다.

지금까지 도쿄의 한 개인택시조합이 지난달 18일 야카타부네를 빌려 조합원과 가족 등 80명 규모로 개최한 선상 신년회의 참가자들 가운데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에 걸린 야카타부네 종업원 중 1명이 신년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15~16일 중국 후베이(湖北)에서 온 여행객을 접촉한 것이 집단 감염의 단초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요코하마항 떠나는 미국인 승선객

코로나 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해 일본 요코하마항 크루즈 터미널에 발이 묶여 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미국인 승선객들이 17일 새벽 귀국 전세기편을 타기 위해 버스를 타고 터미널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발원지 논란... '연구소 유출설' 등 추측 난무

“최초 환자, 수산시장과 무관”

“中 군부 연관 있다” 온갖 소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최초 감염 환자를 놓고 중국 안팎에서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면서 그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과 학원 산하 우한(武漢) 바이러스연구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황옌링(黃鵬玲)이 '0번 환자'라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는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황옌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0번 환자'이며, 이를 화장하던 장례업체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이후 확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연구소는 성명에서 “황옌링은 2015년 연구소에서 졸업해 석사학위를 받은 뒤 계속 다른 성에 있었으며 우한에 돌아온 적은 없다”며 “황옌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하다”고 밝혔다. 연구소 측은 “코로나19와 싸우는 결정적인 시기에 유언비어가 우리의 과학 연구 작업에 큰 방해가 된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발원지가 우한의 화난(華南)수산물시장이며, 박쥐 등에서 발원한 바이러스가 수산물시장에서 팔린 야생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최초 감염자와 전염 경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서 코로나19의 최초 감염자에 대한 온갖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우한 진인탄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41명을 연구한 결과 첫 번째 환자가 시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첫 번째 감염자와 이후 환자들 간의 역학적 연관성도 없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대니얼 루시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화난수산물시장에서 유출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중국 내에서 유일한 생물안전 4급 실험실을 갖춘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생물안전 4급 실험실은 에볼라 바이러스 등 가장 치명적인 병균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군사과학원 생물공정원이 이 4급 실험실을 관리하고 있다는 등 중국 군부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소문도 돌았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20〉 소식

소식(蘇軾, 1037~1101)의 자는 자첨이고 호는 동파거사다. 쓰촨성 미산현 출신으로 당송 8대가 중 한 명이다. 신법에 반대한 구법당의 일원으로 신종, 철종, 휘종때 활약한 북송의 정치인, 관료, 문인이다.

부친인 소순 또한 유명한 문인으로 소로전(蘇老泉)으로 불렸다. 동생 소철 또한 뛰어난 문재를 보여주었다. 형 소식과 함께 진사 시험에 합격해 중서사인과 한림학사를 지냈다. 소순, 소식, 소철 모두 당송 8대가에 포함된다.

소식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해 한서, 후한서 등을 통독했다. 21세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 논문의 제목은 형상충후지론(形質忠厚之至論)으로 나라의 상벌은 반드시 충직함과 온후함에

를 중산에 은거한 왕안석을 만나 서로의 오해를 풀었다.

신종 사후 나아린 철종이 즉위하고 구법당이 재집권했다. 사마광이 재상으로 돌아왔으며 그도 한림학사에 임명되었다. 사마광은 면역법, 청모법을 폐지했다. 그는 면역법은 이미 정착되어 가는데 개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로 인해 구법당 내에서 그의 위상이 미묘해졌다. 중앙정치를 벗어나고자 항주자사로 내려갔다. 재임 중 서호의 진흥을 파내어 제방을 만들었다. 이것이 유명한 소제(蘇堤)다. 중앙에 소환되어 병부상서, 예부상서가 되었다. 동생 소철은 예부상서, 후한서 등을 통독했다. 21세 진사 시험에 합격했다. 논문의 제목은 형상충후지론(形質忠厚之至論)으로 나라의 상벌은 반드시 충직함과 온후함에

북송 정치인·문인...당송 8대가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독관인 구양수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평생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후일 문장이 천하에 홀로 뛰어날 것”이라고 소식의 빛나는 미래를 예견했다.

신종이 왕안석을 참지정사, 재상으로 발탁해 신법 개혁을 맡겼다. 그는 신법에 찬성하지 않았다. 촌충한 법규로 백성의 삶과 생활방식을 속박하는 것에 반대했다. 1071년 신법의 부작용을 거론한 상소문을 바쳤다. 왕안석은 대노했다. 그는 지방 근무를 자청해 항주통관, 밀주지사를 역임했다. 비록 왕안석과 소식은 서로 다른 당파에 속했지만 시와 산문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왕안석은 소식의 눈에 관한 시에 감탄해 여섯 수의 시를 지었다. 왕안석이 시역법의 후폭풍으로 정계를 떠나 강녕으로 낙향했다. 신법당인 여해경이 정국을 주도했다. 1079년 소식의 지은 시가 조정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신법당 사이에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득세했다. 왕안석은 “성세에 어찌 재사를 죽인다”는 말인가라는 반대 상소를 올렸다. 신종이 그를 항주로 강등, 좌천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그의 대표작인 적벽부(赤壁賦)는 이 시기에 탄생한 결과이다. 호를 동파거사(東坡居士)로 정하고 시작에 전념했다.

1083년 여주 단련부사로 전임했다. 금

1093년 섭정을 하던 황태후 고씨가 죽고 철종이 친정을 나섰다. 신법당이 재차 집권했다. 정주자사에서 광동성 영주자사로 전근하던 중 모든 관직을 발탁당하고 해주로 유배되었다. 59~62세까지 3년간 해주에 있었다. 그가 즐겨 먹었다는 동파육(東坡肉)도 이 시기의 산물이다. 62세 다시 해남도로 유배되었다. 미개한 연속이 주로 거주하는 오지였다. 그러나 그의 시혼은 소멸되지 않아 적잖은 시를 창작했다. 1100년 철종이 죽고 그의 동생인 휘종이 즉위했다. 섭정 황태후 상씨와 화합을 위해 구법당을 구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수도로 돌아가는 도중 강소의 상주에서 병을 얻어 1101년 66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는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었다.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백성의 애환을 자주 시의 주제로 삼았다. 주변의 친우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그의 시에는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불교에 깊이 빠져 현실 삶의 허무함을 깊이 인식했다. 그의 시에 초월적이고 현실도피적 인생관이 깊게 스며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생을 관통하는 낙천적 품성으로 여러 번의 정치적 좌절과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갔다. “성적이 운명이다”라는 말이 그의 인생을 잘 묘사한다고 하겠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상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합회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2,400~4,800 원의 원금지원
- 저소득층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지원 대출(대우 장학)
-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저소득층 지원

평생 어부바

신협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평생 어부바

신협